

코로나에 외식 급감, 쌀값 하락 불렀다

전남지역 쌀 판매액 지난해보다 15.2% 감소한 308억원 쌀값 두달 연속 하락 80kg 18만9848원...목표가 크게 밑돌아

코로나19 여파로 외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한 달 여 간 전남지역 쌀 판매가 15.2% 줄었다.

쌀 판매 부진은 쌀값 하락을 부추기면서 정부의 목표가격을 크게 밑돌고 있다.

25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1월 15일~2월 15일 전남지역 쌀 판매액은 30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액보다 57억원(-15.2%) 감소했다.

특히 RPC(마곡종합처리장) 양곡거래액은 382억원으로, 쌀 판매 부진으로 지난해보다 29억원(-7.1%) 줄어들며 400억원대 아래로 주저앉았다.

쌀 판매 부진은 재고 과잉 우려를 낳고 있다.

15일 기준 전남지역 원료재고는 21만8000t으로, 전국 재고(127만6000t)의 5분의 1이 쏟아졌다.

전남본부는 지난 21일 지역 통합 RP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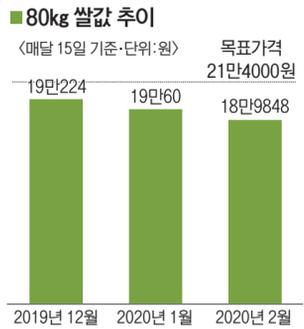
장장 12명과 '양곡수급관련 긴급 회의'를 갖고 쌀 판매와 재고 현황을 공유한 뒤 대책을 논의했다.

농협 전남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에서 잇따라 확산되면서 외식 수요가 눈에 띄게 급감했다"며 "외식 감소는 쌀 소비와 쌀값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코로나19 외식 업계 영향 2차 조사'를 벌여 국내 확진자가 나온 지난 달 20일 전후 3주간 고객 수를 비교해보니 전라권 외식업체의 81.7%가 고객이 줄었다고 답했다.

정부는 2018-2019년산 쌀 목표가격을 80kg당 21만4000원으로 책정했지만 쌀값은 두달 연속 감소하며 이를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통계청 '산지 쌀값 조사'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80kg 쌀값은 18만9848원으로



집계됐다. 쌀값은 지난해 12월 19만224원에 이어 올 1월 19만600원을 기록하며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올해 농업인 보조금 제도가 '공익직불금'으로 개편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부터 마지막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80kg당 5480원으로, 지난해 변동직불금 2544원보다 2배 넘게 뛰었다. 쌀 변동직불금 제

도는 수확기(10월-익년 1월)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목표가격과의 차액의 85%에서 해당연도 지급받은 고정직불금 단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수확기 평균 쌀값(80kg)은 전년(19만3448원) 보다 3400원 넘게 떨어진 18만9994원으로 나타나면서 쌀 변동직불금도 크게 올랐다.

올해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받는 전남지역 농업인은 10만7434명으로, 전년 11만231명 보다 2800명 가량 줄었다. 전남지역 지급대상은 전체의 16.8% 수준이다.

올해 전남지역에는 498억4626만원이 배정되면서 쌀 농업인 한 명당 46만3970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쌀 변동직불금에 수확기 쌀 가격과 고정직불금을 합한 농가 수취금액은 80kg당 21만399원"이라며 "쌀 목표가격 21만4000원 대비 98.3%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했다"고 자평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03.61 (+24.57) ↑ 금리(국고채 3년) 1.17 (+0.03)
- ↑ 코스닥 656.95 (+17.66) ↓ 환율(USD) 1210.30 (-9.90)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경영자금 신청 붐몰

소진공 1332건, 광주신보 1800건, 중진공 15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에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들이 총 1332건을 신청했으며, 그 금액만 6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광주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별보증에도 1800여건, 480억원의 자금 신청이 접수됐으며, 추후 상담을 예약한 소상공인도 1500여명이 남아 있는 상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본부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중소기업도 15건 38억원에 달했다.

가 얼어붙어 당분간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날 한국은행의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6.9로 한 달 전보다 7.3포인트나 급락했다. 낙폭은 증등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유행한 2015년 6월과 같았다.

이번 조사는 확진자가 급증하기 전인 2월 10~17일 이뤄졌다는 점에서 다음달 소비자심리지수는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더 퍼질 수 있다는 우려에 소비심리는 잔뜩 위축돼 지난 설 명절 이후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에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급격히 줄었다.

소비자충진점 소비자동향지수(CSI)와 가계수입전망 CSI는 4포인트씩 내리며 각각 106, 97을 나타냈다.

소비자들이 지금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는지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 CSI도 12포인트 급락한 66을 기록했고, 향후경기전망 지수도 11포인트 하락한 76을 기록했다.

최근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영업에 타격을 입어 그만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도 급증하는 분위기다.

소상공인 상당수가 종업원 5인 미만의 음식점과 숙박업소, 소매업을 운영하는 등 영세한 탓에 코로나 여파가 장기화될 경우 이들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소비심리

가 멀어질수록 지역민들과 의료시설, 방역단체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위니아세탁기(15kg)는 대용량으로 집단시설에서 나오는 다량의 의류 세탁이 가능하고, 통세척 기능이 탑재돼 안전한 위생상태를 보존할 수 있어 감염병 대응에 적합하다고 위니아담채는 설명했다.



"대구시민 힘내세요"...위니아담채, 세탁기 100대 기증

대우위니아그룹 가전 계열사 위니아담채(대표 김혁표)는 2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시에 위니아세탁기(15kg) 100대를 기증했다.

위니아담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지역 의료기관과 가족 단위 격리대상의 위생환경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후원지역으로 결정했다.

기증품은 코로나19 예방과 극복에 활용

'북미 굿 디자인 어워드' 금호타이어, 본상 수상

금호타이어(대표 전대진)는 '2019 북미 굿 디자인 어워드'(Good Design Award) 운송 디자인 부문에서 3개 제품이 본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북미 굿 디자인 어워드는 1950년 시작해 69년째 세계적으로 전통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대상 제품은 프리미엄 세단을 위한 고성능 타이어인 '마제스티(Majesty) 9 솔루스 TA91'와 '엑스타(ECSTA) PA51', '윈터크래프트(WinterCraft) Wi51' 등 3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제품의 품질은 물론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선보일 금호타이어의 다양한 제품들도 고객 중심의 디자인 철학을 일관되게 반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회용품 한시적 허용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25일 오후 광주시 북구 한 카페에서 매장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회용 컵을 제공하는 모습.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2월 기업 체감경기 78.9...11년만에 최저

코로나19 사태로 이달 기업 체감경기가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경기에 대한 기업 심리도 급격히 위축됐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

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2월 실적치가 78.9로 조사돼 2009년 2월(62.4) 이후 13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BSI 실적치가 기준선(100)을 넘으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부문별로는 내수(79.6), 수출(85.4), 투자(89.5), 자금(92.0), 고용(95.4), 채산성(88.1) 등 전 부문에서 기준선 이하를 기록했다.

3월 BSI 전망치는 84.4로, 작년 12월(90.0) 이후 상승세를 타다가 3개월 만에 꺾였다. 전달(92.0)과 비교하면 7.6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부문별로는 내수(86.5), 수출

(89.7), 투자(91.8), 자금(93.1), 재고(102.5), 고용(95.4), 채산성(93.1) 등 전 부문에서 기준선 미만을 기록했다.

한경연은 3월 전망치가 전달 대비 7.6포인트 하락하면서 사스(-11.7), 메르스(-12.1) 사태와 비교해 하락 수치가 작지 않지만, 코로나19가 초기 단계인 데다 현재 진행 중이어서 과거보다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모던 스타일

클래식 스타일

지중해 스타일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